

## 휴식 늘려 근무 줄인 아파트 경비원 “꼼수인것 알지만 잠자코 있어야죠”

르포 - 최저임금 인상 40일 현장 가보니

주유소 셀프주유소 전환 잇따라... 편의점 점주 직접 근무 늘려

“임금을 올려주지 않으려는 꼼수라는 걸 예 뻔했어. 뻔하 보이지. 그래도 어떡합니까. 이 나이에 경비원 일자라라도 없지 않으려면 잠자코 있어야죠.”

광주시 광산구 한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경비원 A씨는 최근 총 근무시간을 1시간 줄이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아파트 측에서 출퇴근 시간은 그대로 둔 채 무급 휴식시간을 늘리는 형태로 근무시간을 줄인 것이다. 올해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16.4% 오르자 인건비 상승분을 상쇄하기 위해 휴식시간을 늘린 것이다.

일부 청소년과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아예 최저임금을 챙겨 받지 못하기도 한다. 광주 시내 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B씨는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올랐지만 지난해 6470원과 동일한 임금을 받고 있다.

카페 사장이 “도저히 부담스러워서 인상을 못 해주겠다.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쓰지 않을 것이다”며 임금을 올려주지 않았다. 방학기간이라 새로 알바를 구하기도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일한다는 게 B씨의

설명이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첫 급여일이 지나면서 광주·전남지역에 인건비 인상을 상쇄하려는 편의점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주유소·편의점 등 업계에서는 직원채용을 줄이고 있어 일자리가 축소될 수 있다는 불안도 나오고 있다.

광산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C씨는 “알바생들에게 최저임금 인상분에 맞춰 월급을 주니 한 달 지출이 100만원 더 늘었다”며 “막상 월급이 나가기 감당키 어렵다고 느껴 내년엔 셀프주유소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현재 광주지역 주유소 296개 중 셀프주유소로 전환한 곳은 100여개를 넘어선 상태다. 일부 주유소에 비해 셀프주유기 설치·교체 등 투자비가 발생하지만 24시간 영업이 가능하고 야간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돼 셀프주유소 전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24시간 운영’이 보편적인 편의점과 PC방 업계에서는 유난히 인건비 부담

이 크다고 호소한다. 24시간 운영을 포기하고 새벽 시간대 점포를 닫거나, 알바를 고용하는 대신 점주가 본인의 근무시간을 늘리는 분위기다.

실제,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가 지난 2월 초 광주 214개 서비스업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점포 10곳 중 7곳만이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었다. 그중에서 편의점업계의 준수율은 45.8%에 불과, 주유소(91.4%), 식음료(84.8%)에 비해 가장 낮았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원을 감축했다는 응답이 전체의 15.9%나 됐다. 앞으로 감축할 예정인 곳도 9.8%에 달했다. 최저임금 시장이 고용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이다.

앞서 지난 1월 광주지역 아파트 단지 109곳 경비원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모니터링을 한 결과 63곳(58%)이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근무시간을 줄이고 휴식시간이 늘었다고 응답했다.

광주의 한 영세자영업자는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추진하고 있지만 신청 필수조건인 4대 사회보험 가입이 부담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줄 실책이 있는 정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xer@kwangju.co.kr



금메달 점프 제이미 앤더슨(미국)이 12일 평창 휘닉스 스노 경기장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키 스노보드 솔로프스타일 경기를 하고 있다. 앤더슨은 83.00점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며 대회 2연패에 성공했다. /연합뉴스

## 시·도지사·교육감·국회의원... 선거 레이스 시작

오늘부터 예비후보 등록

오는 6월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시·도지사 선거와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이 13일부터 시작된다. 또한,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광주 서구갑, 전남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 등록도 같은 날 시작되면서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가 펼쳐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선거 입지자들의 출마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12일 광주시와 전남도 선관위에 따라

면 시·도지사 선거와 교육감 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하려면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국회의원 또는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전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 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승·수화시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다.

## 쇼트트랙 최민정 오늘 금메달 질주

평창 동계올림픽 18·19·20면

한국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의 에이스 최민정이 금빛 릴레이에 나선다.

최민정은 13일 오후 7시 강릉 아이스 아레나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쇼트트랙 500m 경기를 치른다. 경기는 준준결승을 시작으로 결승까지 진행된다.

지난 10일 임효준이 한국의 첫금메달 쇼트트랙의 금메달 릴레이의 시작을 알리는 질주를 펼친 만큼, 최민정이 두 번째 금메달 소식을 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민정의 도전에는 ‘처음’이라는 의미도 있다. 한국은 쇼트트랙의 세계 최강국으로 꼽히지만 아직 여자 500m에서는 금빛 소식을 전하지 못했다.

최민정은 이번 올림픽에서 다관왕을 노리고 있다. 1000m와 1500m가 주종목이지만 500m에 욕심을 부리며 혼란을 진행했고, 최근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에서 세 차례나 500m 우승을 이뤘다. 최민정은 500m, 1000m와 1500m 모두 세계랭킹 1위다. 최민정이 나서는 여자 3000m 계주 역시 한국이 가장 유력한 우승후보다.

한편 13일 남자 쇼트트랙 대표팀도 두 번째 메달을 위한 워밍업에 나선다. 1500m 결승에서 넘어져 아쉬움을 삼켰던 황대현과 2관왕을 노리는 임효준이 오후 7시 26분부터 남자 1000m 예선을 치른다. 오후 8시 32분에는 남자 5000m 계주 예선이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취재단=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광주일보

특조위 조사로 드러난 5·18 진실  
육해공군 동원 막강 보안사령관 ▶7면

최진석의 老莊의 생각  
우물 안 개구리 무모한 상상력 ▶16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605-1115

## 민주평화당 지도부 첫 광주 방문 “호남의 가치 지키는 정당 되겠다”

조배숙 대표 “광역단체장 선거 현역의원 진출 어려워”

민주평화당 지도부가 12일 광주를 찾아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47명의 지역위원장을 선정하는 등 사실상 ‘호남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당의 기틀을 호남에서 잡았다. 조배숙 대표는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호남 돌풍’을 예고했고, 박지원 의원 등 당의 주요 국회의원 등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강조하며 “호남의 가치를 지키는 정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배숙 대표와 김경진 상임선대위원장, 정인화 사무총장, 천정배 최고위원 등 소속 의원 10여 명이 함박눈이 내리는

날씨에도 광주시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조 대표는 방명록에 ‘송고한 희생을 마음에 새겨 평등한 세상을 호남정신으로 실현하겠다’고 남기는 등 이날 지도부의 광주 방문 일정 내내 ‘호남정신 계승’을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호남에서 민평당의 바람이 불 것이며, 이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호남 광역단체장 3곳 모두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광주시장·전남지사 현역 의원 차

출에 대해 조 대표는 “국회의원 1석이 아쉬운 상황에서 현역의원을 광역단체장 선거에 내보낸다는 것은 쉽지 않고, 현역의원을 차출해 지방선거에 내보내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민평당은 원외에서 지방선거 후보군을 찾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박지원 의원은 “최근 북한 삼지연 악단 공연을 보며 6·15남북정상회담 특사였던 저는 만감이 교차했다”면서 “올 봄 차가운 눈 속에서도 평화의 새싹을 틔울 수 있도록 민평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평당 지도부는 광주시의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통해 광주 동남각 지역위원장에 장병 안 의원을 임명하는 등 전국 47개 지역위원장을 선정했다.

한편 지난 11일부터 1박 2일에 걸쳐 전북·광주를 찾은 민평당은 오는 설 연휴 직후 전남 방문을 이어간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HNT 하나투어**

무안 출발

**오사카** 대한항공  
2018년 2월 15일, 18일, 22일, 25일 4회!

**세부** 팬퍼시픽항공  
~ 2018년 3월 31일 매주 수, 토 출발

**보라카이** 팬퍼시픽항공  
~ 2018년 3월 29일 매주 목, 일 출발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 총장점  
062) 228-1199

안심결제 캠페인 | Fair Price 공정한 가격, 즐거운 여행

## 즐거로운 무안출발 해외여행

설연휴, 겨울방학, 봄방학을 완벽하게 즐기는 방법

**하나Pack 캐주얼** JOPF01\_KE1  
[동반아동함입] 스파월드  
**오사카/고베/교토/나라 3일, 4일**

**총 상품가격 1,290,000원~**  
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없음 / 선택경비 있음

🕒 2/15(목), 18(일), 22(목), 25(일)  
✈️ 대한 항공  
🏠 무안 → 오사카(2/3) → 무안  
🎁 특식 2회(샤브샤브 정식, 유두부 정식)

**하나Pack 캐주얼** APPF10\_BY1  
[한정특가] 일급리조트+세일링보트  
**보라카이 4일, 5일**

**총 상품가격 618,800원~**  
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40~ / 선택경비 있음

🕒 2/1(목)~3/29(목) 매주 목, 일 출발  
✈️ 팬퍼시픽 항공  
🏠 무안 → 보라카이(3/4) → 무안  
🎁 특식 1회(아도보 특식)

**하나Pack 캐주얼** APPF01\_BY5  
화이트샌드리조트+발마사지  
**세부 4일, 5일**

**총 상품가격 687,000원~**  
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40~ / 선택경비 있음

🕒 2/1(목)~3/28(수) 매주 수, 토 출발  
✈️ 팬퍼시픽 항공  
🏠 무안 → 세부(3/4) → 무안  
🎁 특식 2회(샤브샤브, 아도보 백림)

■여행상품 가격표(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보험료, 현지관광요금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코드 경비 포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항공 운임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여행상품]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객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방지법 시행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관광사설자 등록번호 제26004-1993-6 (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9층 하나투어 ■최소 출발인원 10명 / 기종/호외 2급호텔 이상 2인 1실/교통편 항공/버스/해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콜센터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영업 보증보험 22억 (천만원 가입)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의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선택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미 선택 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our.com)를 참조해 주세요. 해외 안전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현황 | ●여행 유의 ●여행 자제 ●철수 권고 ●여행 금지